

클로드 한도

아끼는 습관 5가지

클로드는 대화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, 말 걸 때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. 답장 하나 하려고 카톡방 전체를 매번 다시 읽는 친구처럼요. 그래서 대화가 길수록 한 마디에도 한도가 쑥쑥 줄어요.

00

왜 한도가 빨리 줄까?

보낼 때마다 지금까지의 대화 전체가 같이 가요. 파일을 읽거나 명령을 하나 돌릴 때마다 그 결과까지 붙어서 또 가요. 하루 종일 열어 둔 대화에선 짧은 질문 하나도 대화 전체만큼 한도를 써요.

아래 명령어는 클로드 코드 입력창(앱 Code 탭 또는 터미널 claude)에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.

01

일이 바뀌면 새 대화

다 읽은 책은 덮고 새 책을 펴는 거예요. 상관없는 일로 넘어갈 땐 대화를 비우고 새로 시작하세요. 비우는 데는 한도가 들지 않아요. 앱에서는 새 세션을 열어도 같아요.

명령어

```
/clear
```

02

한참 쉬었다 오면 요약만 들고 새 대화로

클로드는 읽던 대화를 잠깐 저장(캐시)해 두는데, 오래 자리를 비우면 이 책갈피가 빠져요. 그 뒤 첫 마디는 대화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. 길게 쉬었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요약해 달라고 한 뒤, 그 요약만 들고 새 대화를 시작하세요.

쉬기 전에 부탁하기

지금까지 한 일, 남은 일, 정한 것을 5줄로 요약해 줘

03

쉬운 일은 가벼운 모델

편의점 가는데 트럭 물 필요는 없죠. 대부분의 일은 **Sonnet**으로 충분하고, **Opus**는 복잡한 설계나 여러 단계를 깊게 생각해야 하는 일에만 쓰세요. 생각을 덜 해도 되는 일은 노력(effort)도 낮추면 더 아껴요.

모델·노력 바꾸기

```
/model  
/effort
```

04

CLAUDE.md는 짧게

CLAUDE.md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읽는 주의사항 쪽지예요. 길면 매번 그만큼 한도가 나가요. **200줄 안으로** 꼭 필요한 것만 적고, 가끔 쓰는 긴 지시는 필요할 때만 읽는 **스킬**로 옮기세요.

05

/usage로 가계부 보기

구독 요금제라면 한도를 어디에 썼는지(스킬·플러그인·MCP 서버·서브에이전트별)와 줄이는 방법 추천까지 보여 줘요. 안 쓰는 MCP 서버는 **/mcp**에서 끄고,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**/context**로 볼 수 있어요.

명령어

```
/usage
```



부탁은 꼭 집어서

"좀 고쳐 줘", "찾아 줘"처럼 막연하게 말하면 집을 다 뒤지듯 파일을 여기저기 읽어요. "이 파일의 이 부분"처럼 서랍을 알려 주면 바로 꺼내요.

예시

```
auth.ts의 login 함수에 입력값 검사 넣어 줘
```

※ 반장·울은 AI로 그린 캐릭터예요. 2026년 10월 26일 클로드 코드 공식 문서 (code.claude.com/docs/en/costs) 기준이고, 메뉴 이름은 앱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궁금한 건 [@ai_banjang](#) 댓글로.